

(통 308)

J. O. Thompson, 1885

느리게 ♩ 60

넓은 들에 익은 곡식 589

추수할 것은 밭의 일꾼이 적으니
(마 9:37)

REAPERS: 8.7.8.7.REF.
J. B. O. Clemm, 1885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식에서 황금물결 뒤치며
3. 먼 동풍이 불 때에 일어난 일 천국 찌꺼기에 나가
4. 거둬들이는 자가 될까? 찬찬히 추수할 때에 아멘

어디든 가는 때에 양빛에 향기진 동하도다
열심할 때에 가을이 되면 양빛에 향기진 동하도다
추수할 때에 가을이 되면 양빛에 향기진 동하도다
추수할 때에 가을이 되면 양빛에 향기진 동하도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지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감사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2023 추석기-경예배

-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거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63:3~4)

삼애교회
SAMAЕ CHURCH

추석가정예배

예배로 부름 인도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시63:3~4, 개역개정)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추석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559장 다 같이
 가족기도문 온 가족

인도자 : 온 가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가족 : 가을의 빛이 가장 빛나는 추석에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가족이 되어 함께 모일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족 : 두 손을 맞잡고 기도로 하나 되길 원하는 저희 가정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저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옵소서.

가족 :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같이 :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 136:23~26 다 같이
 23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4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5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나눔 온 가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한 후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89장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559

(총 305) 이호와를 성취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임마누엘 가정: 10.10.10.REF. 김부희, 1967
 전영택(1894-1968)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이다(시 112:1-2)
 빠르게 116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라 임마누엘 에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